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성령강림주일 / 창립기념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10장 다같이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2.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예레미야 35:18-19 인도자

설 교 “대를 잇는 믿음”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2.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게 되게 하옵소서.
3. 허락하신 땅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를 잇는 믿음

예레미야 35:18-19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는가? 유산에는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이 있다. 보이는 물질적 유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귀한 유산들이 많이 있다. 믿음의 유산,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교훈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 장 폴 사르트르는 “자식들에게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유산은 신앙심이다. 부모들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라고 했다. 성경 곳곳에 족보가 많이 나오고, 신앙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믿음의 대를 통해 왕들도 나오고 메시아도 믿음의 대가 더할수록 축복도 더 커진다. ▶예레미야 38장은 레갑 사람 가문의 이야기다. 그들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신앙 전통을 지키기 위해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불편하고 구별된 생활을 했다. 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서, 이드로의 처남 호압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었다.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의 자손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왜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라고 명령했을까? 북조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예후를 세운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찾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확인하고 함께 정치 개혁과 종교 개혁을 했다. 하지만 후에 예후는 변절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다. 여호나답은 예후와 절교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다. 농사를 짓는 자들은 파종하거나 추수할 때 금송아지 앞에 상을 차려 놓고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놀았다. 그러므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고,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을 하면서 살라”고 명령한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자는 요나답의 믿음을 보라.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세상 향락, 세상의 소유욕을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250여년이 지난 후에도 후손들은 요나답의 이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오고 있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청하여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한다. 하지만 250년 된 요나답의 명령이 예레미야와의 우정보다 더 중요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다. 당대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멸시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두가지의 복 즉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앞에 영원히 서게 되는 복을 받았다. 후자는 대를 잇는 믿음의 복이다. 레갑 족속의 가치는 여러 가지 향락에 취하고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세속가치에 타협하지 않는 삶, 절대가치를 추구하는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가정도 신앙의 전통을 세우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려는 열심을 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려는 결단을 담고, 믿음의 조상의 교훈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자.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과 은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자. 분명한 영적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자. 당신의 가정에는 어떤 전통이 있는가? 무슨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레갑 족속의 믿음의 전통과 축복을 기억하라.